

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청사진 그린다

전주시정연구원·학계·병원·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본구상 공동연구 추진단 구성·운영

전주시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병원,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구상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구상 공동연구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연구 추진단은 김수미 전주시 신성장산업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주시정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 학계·병원·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레드바이오산업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행정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각 전문 분야별 자문 등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분야별 실무과제 및 현안 사항에 대해 공동연구 추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체계를 마련해 전주형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레드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주목하고, 이에 걸맞은 역량과 인프라를 차근차근 갖추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유일의 3·4등급 중재 의료기기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제 표준기준)를 구축했으며, GLP(비임상시험규정)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기업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프라를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국가 예산 사업 등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특화된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창업메이스트 캠퍼스 혁신파크, 중개임상의 근거지인 전북대병원, 양산 기지인 산업단지 등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주형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을 수립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일 공동연구 추진단 구성원들과 전주형 레드바이오산업의 추진 경위와 운영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회의는 전주형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주형 바이오산업의 초석을 다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명예장 수상했다.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성장 기여

전북개발공사,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명예장 수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명예장 수상했다고 전했다.

전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지역과 상생하는 ESG경영을 추진하는 기관이며,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복구활동, 재난 피해 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은 적십자 사업의 재원조성과 인도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포장이므로 전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을지연습 통해 비상 대비 태세 확립

전시전환절차 연습 등 실시

전주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연습'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전주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비상 대비 계획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이뤄진다. 또,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 조치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실제 훈련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을지연습에서 첫날 최초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약 220여 명의 직원과 군·경·소방 등으로 구성된 전시종합상황실을 편성하고, 3박 4일간 주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전과 같은 연습에 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을지연습 기간 △ 전시지체 편성 및 전경기구 창설 훈련 △ 기관 소산이동 △ 도산연습과 전시



전주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연습'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간 전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현안과제 토의 △ 국가 중요시설 드론 테러대응 훈련 △ 민방공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확

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전주시 통합방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

중요시설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에 의한 국가중요시설 테러 상황을 가정한 긴급 복구 및 방호 훈련으로 이뤄진다. 시는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되며, 교통통제 및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4일 을지연습 기간 전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 숙달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공무원 필수 요원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우범기 시장은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방심과 빈틈도 용납되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연습에 임해 달라"면서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비상대비 역량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새내기 직원 25명 '주니어보드' 구성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조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로, '청년 중역 회

의'라고도 한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이후 입사한 새내기 직원 총 25명으로 주니어보드를 꾸렸다.

구성원들은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공단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단의 발



전을 이끌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니어보드가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공단의 바람이다. 또 공단 비전과 경영방침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내기 직원들이 조직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젊은 직원들의 발달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자칫 경직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새내기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며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비나텍 본사·완주공장 방문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19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나텍' 본사와 완주공장을 방문해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 의장과 위원장단은 이날 비나텍 완주공장의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최신 기술과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또 본사에서는 성도경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

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성도경 대표는 "전주시의회의 방문과 관심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을 위한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남관우 의장은 "비나텍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